

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⑤

윤주호

#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목)~37(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쇼케이스 70분

\*아티스트 토크 37(토) 3시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dy/7508

## 작가노트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은 '관찰 예능'을 만들었던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치 카메라 감독'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 1. 거치 카메라, 거치 카메라 감독

관찰 예능의 특수한 점 중 하나가 거치 카메라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거치 카메라는 카메라 감독이 잡고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벽 구석이나 천장같이 잘 안 보이는데 설치해놓고 쪽 녹화를 돌리는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버라이어티나 토크쇼와 달리 관찰 예능에서는 거치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카메라입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카메라 감독이 보며 조작하는 기존의 방송용 카메라가 딱 짜인 연출이 들어간 화면이라면, 거치 카메라의 화면은 그걸 관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는 앵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거치 카메라를 다루는 새로운 직종이,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의 등장인물인 거치 카메라 감독들입니다.

- 거치 카메라 감독들은 촬영이 시작하기 전에 대본에 맞춰서 카메라를 모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녹화를 돌리고, 막상 촬영이 시작하면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어딘가, 예를 들면 신발장이나 창고에서 대기합니다.

- 관찰 예능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에피소드를 찍기 위해 현장마다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50대의 거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오소모, 핸디캠, 고프로, 빅사... 그 카메라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거치 카메라 감독들은 굉장히 많은 장비를 들고 다닙니다. 카메라에 카메라 부속품까지, 작은 촬영에도 승합차가 딱 찰 정도로 많은 장비를 챙겨 다닙니다.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그래서 거치 카메라 감독에게는 장비의 상태와 숫자를 체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의 상태를 시시각각 체크하며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를 갈아주고, 메모리가 꽉 차면 메모리를 갈아주고, 막상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일보다 메모리를 챙기고 장비를 체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 2. 관찰 예능

그런데 이렇게 거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스튜디오 토크 없이 그 부분만 편집한 VCR을 보다 보면, 굉장히 심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찰 예능이 보통 일상을 관찰하는, 그렇게까지 다이내믹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 스튜디오 토크 없는 VCR은 팔 없는 찌뽕 같은 건데, 그렇게 심심하던 VCR에 스튜디오 토크가 붙어서 이야기가 되는 걸 보는 건 항상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관찰 예능의 핵심은 스튜디오 토크다, 라고 선배들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에서도 이런 관찰 예능의 형식을 빌려와 스튜디오 토크가 등장합니다. 아래는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에서 등장인물들이 찍고 있는 예능, <잡스러운 스타들>의 스튜디오 대본입니다.

### # 오프닝

- MC, 패널 2인 등장, 근황 토크

### # 프로그램 소개

- 정리되면,

MC 왕년의 스타! 그들의 180도 변신!

새로운 직업을 가진 왕년의 스타들!

그들의 인생 제 2막을 관찰한다!

<잡스러운 스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웃음과 박수

### # VCR 플레이

MC 처음으로 등장할 잡스러운 스타가 누구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 리액션 보고, VCR 플레이

그럼 즐거운 관극 혹은 관찰이 되시길!

**두산아트랩 공연 2026**  
**윤주호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2026.3.5-3.7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 윤주호

연출 설유진  
출연 최정현 송하늘 고이선  
조명 디자인 신동선  
조명 오퍼레이터 이채빈  
조명팀 홍유진 정우원 윤혜린 김휘수 주재현 정찬영  
무대 디자인 신승렬  
무대팀 김혜성  
사운드 디자인 목소  
사운드 오퍼레이터 권형준  
음향팀 이효진  
협력 907(구공칠)  
장비대여 폴하우스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